

전북도, 산단 구조고도화 ‘전국 최우수’

군산·김제 공공투자장관상
남원 광치산단 이사장상 수상
노후 산단 환경개선 성과
근로자 복지 편의시설 강화

전북자치도가 노후 산업단지의 근로 환경과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추진한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사업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산업통상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에서 주최한 ‘제2회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어워드’에서 군산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와 김제 월촌농공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이 공공투자 분야 최우수상인 산업통상부 장관상을,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가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상을 각각 수상했다고 27일 밝혔다.

산업단지 구조고도화 어워드는 노후

산업단지를 청년과 신산업이 모이는 혁신공간으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는 구조고도화 사업의 우수 성과를 발굴·확산하고, 산업단지 환경과 근로자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한 기관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공공투자 8건과 민간투자 4건 등 전국에서 총 12건이 선정됐으며, 이 가운데 전북에서 3개 사업이 이름을 올렸다. 특히 공공투자 분야 최우수상 2건을 모두 전북 사업이 차지하면서 노후 산업단지의 환경 개선과 기업 지원을 위한 도와 시·군의 노력이 성과로 이어졌다는 평가다.

군산 국가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총사업비 94억원을 투입해 연면적 3,019㎡, 지상 3층 규모로 조성돼 2024년 9월 문을 열었다. 센터에는 기업지원센터와 작은도서관, 다목적극장, 체력단련실, 평생학습센터 등 기업지원·문화·체육시설을 한곳에 갖춰 산업단지 근로

자들의 여가와 복지 증진을 지원하고 있다. 산단민원센터와 외국인지원센터 등을 통해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를 위한 지원 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특히 군산시는 관원 부서 간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전담 운영 조례를 제정해 시설의 안정적 운영과 지속적인 예산 확보 기반을 마련한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김제 월촌농공단지 휴폐업공장 리모델링 사업은 장기간 사용되지 않던 공장을 임대형 공장으로 재생해 노후 농공단지에 새로운 기업을 유치한 사례다. 총사업비 64억원을 투입해 임대공장 7실과 관리동 등 2,209㎡ 규모의 시설을 조성해 2024년 5월 준공했다. 특히 지자체가 직접 운영하는 임대형 공장 모델을 도입하고 주변 시세의 70% 수준으로 임대료를 낮춰 청년·여성·창업기업의 초기 입주 부담을 줄였다.

현재 7개 제조기업이 모든 임대공장

에 입주해 43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했으며, 입주기업 매출도 50% 이상 증가하는 등 조성된 지 33년이 지난 월촌농공단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한국산업단지공단 이사장상을 받은 남원 광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는 산업단지 근로자들의 복지와 정주여건을 함께 개선한 점을 인정받았다. 총사업비 75억원을 투입해 북카페와 다목적홀, 구내식당 등 문화·편의시설과 원룸형 기숙사를 결합한 생활밀착형 복합시설로 조성됐으며, 2025년 10월 개관 이후 산업단지 근로자와 입주기업의 복지·편의시설로 활용되고 있다.

도와 해당 시·군은 시설 조성에 그치지 않고 사후 운영·관리와 근로자 소통 협의체 운영, 프로그램 개발, 시설 개선 등을 지속해 사업 효과를 높일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사진=전북도의회>

윤수봉 의원, ‘2027 세계청년대회’ 대비 점검

초남이성지 방문 시설·편의 점검
“의회 차원 방문객 지원책 마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의원은 27일 ‘2027년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전북도 차원의 지원책을 마련하기 위해 초남이성지를 방문했다.

세계청년대회는 전 세계 가톨릭 청년들이 참여하는 국제행사로, 오는 8월 서울에서 본대회가 열린다. 본대회에 앞서 전국 각 교구에서 교구대회가 진행될 예정으로 전북을 찾는 국내외 참가자들의 지역방문도 예상된다.

초남이성지는 호남지역 한국 천주교 발상지이자 첫 순교자 유해 발견지로 호남 지역 천주교의 역사적 의미가 있는 장소다.

윤수봉 의원은 현장에서 초남이성지 관련 주요 사업과 시설 현황, 향후 사업 방향 등을 청취하고 세계청년대회 참가자 방문에 대비한 시설 및 편의 여건, 접근성 등을 점검했다.

윤 의원은 “2027 세계청년대회를 계기로 전북의 역사와 문화자원을 알릴 수 있도록 관련 자원을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초남이성지를 비롯한 관련 시설의 준비상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또 “대회 기간 폭염과 폭우, 응급의료 등 안전대책과 숙박·교통 등 분야별 준비가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듣고 필요한 지원과 예산을 의회 차원에서 살피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도, 저출생 대응 현장 소통...공공기관 우수사례 공유

익산도시관리공단서 캠페인 열어
전담 TF·시민 제갈 프로그램 등
우수사례 발굴 및 협력방안 논의

전북특별자치도가 저출생 위기 극복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을 위해 공공기관과의 현장 소통을 한다.

도는 27일 익산도시관리공단에서 ‘저출생 공동대응 릴레이 캠페인’ 6차 행사를 열고 공단의 가족친화 제도와 시민 대상 프로그램을 공유하는 한편, 공공부문의 저출생 대응 역할과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캠페인은 도내 기관·기업의 저출생 대응 우수사례를 발굴·확산하고 현장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이날 행사에는 조윤정 전북자치도 인구청년정책과장과 이지영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 인구보

전복지협회 전북지회 관계자 등 7명이 참석했다.

익산도시관리공단은 저출생 대응 전담조직(TF)을 운영하고 임직원 자녀 나무심기 행사와 매주 수요일 ‘가족사랑의 날’ 등을 추진하는 등 일과 가정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또 출산·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관련 제도를 직원들이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 조성에도 노력하고 있다.

가족친화 노력은 시민 대상 공공서비스로도 이어지고 있다. 임산부를 위한 수중운동 프로그램을 비롯해 엄마·아빠와 자녀가 함께 참여하는 수영교실, 어린이 생존수영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해 3월에는 아동 놀이공간인 ‘하늘공원’을 조성했다. 다자녀 가정을 위한 공공시설 이용료 할인도 시행하고 있다.



<사진=전북도>

이날 참석자들은 공단의 가족친화 제도와 운영 경험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제도를 운영하며 겪는 애로사항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도는 이날 제시된 의견을 향후 저출생 대응 정책 추진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지영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은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부터 출산과 육아를 배려하는 근무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며 “임직원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 공공서비스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부안 하왕등도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0.9㎞143필지...도내4곳으로 확대

전북도는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리 하왕등도가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외국인의 토지 취득에 대한 사전 관리가 강화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정은 영토주권을 강화하고 국토 방위상 중요지역의 외국인 토지 취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조치다. 특히 하왕등도는 영해기선 기점이 위치한 도서로, 국방·안보 측면에서의 중요성과 특수성을 고려해 허가구역에 포함됐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20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전국 353곳, 218.1㎢를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했다. 전북에서는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0.9㎢, 143필지가 새롭게 지정됐다.

이에 따라 외국인 하왕등도 내 토지를 취득하려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부안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부안군은 국방부와 국가정보원 등 관계 행정기관과 협의를 거쳐

허가구역 지정 목적에 지장이 없는지를 검토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허가 없이 토지취득계약을 체결할 경우 해당 계약은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이번 지정으로 도내 국방 목적의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존 군산 직도와 어청도, 부안 상왕등도에 하왕등도가 추가돼 모두 4곳으로 늘었다. 직도와 어청도, 상왕등도는 지난해 2월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도는 이번 신규 지정에 따라 부안군과 함께 외국인 토지취득 허가 절차를 안내하고, 부동산 거래신고 업무 추진 상황을 살피는 등 제도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허가 대상 토지의 취득 절차가 적정하게 이뤄지는지 살피고, 국방·안보상 중요한 도서지역의 외국인 토지거래 관리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지 기자

박희승 “남원 인월~산내 도로 개량 예타 통과”

제6차 건설계획 확정 924억 규모
“남원 예산 확보 긴밀 협력할 것”

남원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국지도 60호선 남원 인월~산내 2차로 개량사업’이 기획예산처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최종 통과해 국가계획에 반영됐다.



박희승 의원

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국도·국

도별·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은 지리산 국립공원의 핵심 관문이자 동부 산악권의 주요 간선도로인 해당 사업이 기획예산처 재정투자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제6차 국도·국

지도 건설계획(2026~2030)’ 반영 사업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원시 인월면에서 산내면을 잇는 총연장 8km 구간을 도로 폭 12m의 2차로로 개량하는 것으로, 총사업비 924억 원 규모의 대형 국비 사업이다.

박 의원은 사업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국회 차원에서 꾸준히 힘을 보태왔다. 지난 7월 31일에는 양충모 남원시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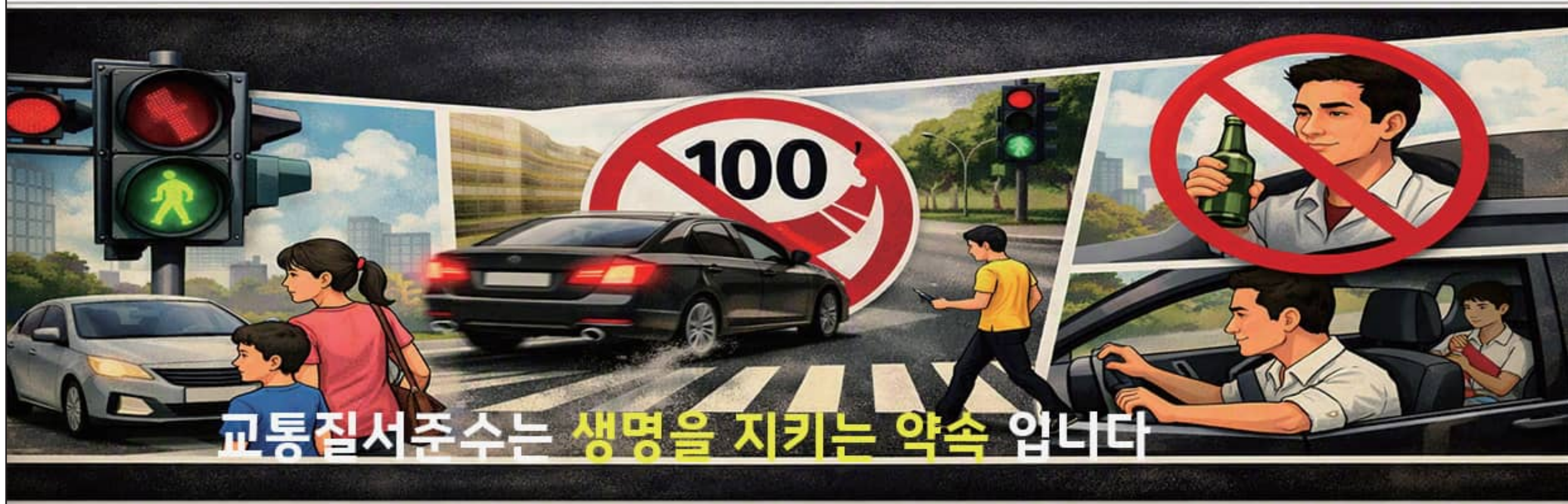
과 함께 박흥근 기획예산처 장관을 만나 남원 지역 현안과 국가예산 확보 필요성을 건의했고, 8월에는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을 면담해 제 6차 계획에 현안이 반영되도록 요청했다.

이와 함께 남원시·전북도·전북연구원 등이 대응반을 꾸려 정부 관계기관을 설득해왔다.

박 의원은 2027년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이 차질 없이 확보되도록 남원시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빨리 가는 길보다, 안전한 길이 먼저입니다



경진원 ‘명절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지원

이달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신청
총 150억원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 ‘2026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지원자금은 추석 명절에 따른 지역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금으로 기업 원활한 자금운영과 경영 안정을 중점에 두고 마련됐다.

지원은 전년도 매출액 50% 범위 내에서 기업당 최대 2억원까지 지원된다. 또 기존 전북도 및 시·군에서 지원받은

운전자금과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기업 추가적인 자금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

융자기간은 2년 거치 일시상환이며 대출금리 중 2%를 전북도가 이차보전해 기업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지원대상은 도내 소재 공장등록 한 중소기업체 또는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업체 등이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도 또는 경진원 홈페이지 ‘2026년 중소기업 육성자금 융자 지원계획 변경공고’를 통하면 확인이 가능하다.

신청은 ‘추석(명절) 경영안정자금’은 이달 31일부터 내달 4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전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종합지원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단, 현장 방문 접수는 불가하다.



전북도와 전북경제통상진흥원은 도내 중소기업 대상 ‘2026 추석 경영안정자금’ 150억원을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업예로해소 △경진원 자금지원팀에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사진=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전문건설협회 전북도회, 지역민 도움 ‘앞장’

화재피해 성금 5백만원 전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

전주시 송전동 농수산물 도매시장 대형화재 피해상인들에게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회원사들의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전해줬다. 임흥근 회장을 비롯한 전문건설사 회원들은 대형화재에 깊은 상심에 빠져있는 상인들을 생각하며 지난 26일 전주시청 운동권 부시장을 찾았다.

이 자리에서 임 회장은 도내 3400여 전문건설사 회원들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성금 500만원을 건넸다. 임근홍 회장은 “갑작스럽게 발생한 큰 화재로 인해 일터와 살터를 잃고 농수산물 도매시장 상인분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며 “도내 3400여 전문건설사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성금이 우리 이웃들에게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협회는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더불어 돕고 나누는 상생의 가치를 지속적으로 실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간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전북도 지역 곳곳을 해마다 방문하며 스이아웃돕기성금 △지역미래인재 양성 장학금 등을 전달하는 등 지역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특히 도내의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피해복구 지원과 지역문화행사 후원 등 다양한 사회공헌사업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는 지역 경제발전과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구현에 앞장서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김영태 기자

“전북 산업단지 제조 AI 전환 본격화”

수요·공급기업 간 맞춤형 매칭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본부장 문문철, 이하 산단공 전북지역본부)는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전북서부지부, 전북테크노파크, (사)제조혁신피지컬AI협회, 한국AI·로봇산업협회와 함께 27일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 3층 대강당에서 전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촉진하고 제조 AX 혁신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전북권 산업단지 MAX 카라반 인공지능 컨설팅 데이’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군산국가산단을 비롯해 새만금국가산단 등 전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 20개 수요기업과, AI·로봇 등 14개 기술 공급기업 간 맞춤형 협력 및 매칭이 이뤄져 제조현장 적용 가능한성과 지역산업 연계 방안을 모색하는 계기가 됐고, 특히, 1부 하반기 및 내년도 정책공모를 대응하기 위한 정책 설명회와 2부 수요기업-공급기업 간 개별 인공지능 컨설팅 및 맞춤형 상담으로 구성돼 전북지역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필요한 기술과 지원사업을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제조기업이 AI·로봇·피지컬 AI 등 새로운 기술을 접하는 데 그치지 않고, 기업별 현장 애로와 기술 수요에 맞는 공급기업을 직접 연결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를 위해 수요기업의 관심 분야 및 현장 애로에 대한 수요를 사전에 조사하고 해당 기술의 전문성을 보유한 전문가와 공급기업을 발굴 및 연결해 기업별 맞춤형 기술 매칭이 진행됐으며, △AI 전환 △비전검사 △예지보전 △공정자동화 △로봇 △품질개선 △피지컬 AI △5G 특화망 등 각 기업의 제조현장에서 필요한 다양한 분야를 중심으로 한 매칭 상담이 한자리에서 이뤄졌다.

산단공 전북지역본부는 이번 매칭 데이를 계기로 기업별 기술 수요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수요기업·공급기업·연구기관 등이 참여하는 과제별 컨소시엄 구성까지 연계해 향후 정책공모 및 후속사업에 공동 대응할 계획이다.

문문철 한국산업단지공단 전북지역본부장은 “제조기업들이 AI 전환의 필요성을 알고 있어도 실제로 어떤 기술을 도입하고 누구와 협력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이번 매칭데이를 통해 기업의 구체적인 현장 수요와 전문기업의 기술을 연결해 단순 상담에서 끝나지 않고 실제 AX 도입과 실증,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지승길 기자

바이오진흥원 ‘지역가공먹거리 소통교류회’

진안·완주·임실
생산업체 및 영양사 등
실무자 의견 공유

바이오진흥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역가공먹거리 소통교류회’를 27일 전주시 일원에서 개최했다.

이번 소통교류회 자리에는 진안·완주·임실 △지역가공품 생산업체 30여개소 △학교 영양교사·영양사 △공공급식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여했다.

소통교류회 현장에서는 지역가공품 ‘두부류’, ‘떡갈비’, ‘장류’, ‘과채주스’, ‘빵·

쿠키류’, ‘유제품’ 등이 전시됐다.

아울러 △영양교사 △생산자들은 제품의 ‘맛과 특징’, ‘용량·규격’, ‘가격’, ‘원재료’ 등의 정보를 나누며 급식 현장 의견을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전북도의회 의원, 전북도·완주군 등의 관계기관 인사와 진안·완주·임실 급식 담당 공무원 등이 참여했다.

이날 참여한 영양교사 또는 생산업체는 공급 구성 및 가공품 등 현장 실무자 서로의 의견을 청취하며 “실속 있는 교류회가 됐다”고 함께 웃음을 보였다.

/김영태 기자



바이오진흥원이 27일 ‘지역가공먹거리 소통교류회’를 개최했다. <사진=바이오진흥원>

농진청 ‘경로학습기반 무인고성능방제기’ 연시회

분무·송풍부 혼합형
1회 작업에 600리터 살포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사과 시험재배지에서 ‘경로 학습 기반 무인 고성능 방제기(스피드 스프레이어)’ 현장 연시회를 28일 가졌다.

스피드 스프레이어(SS기)란 농약을 송풍 공기로 안개처럼 만들어 살포하는 주행식 동력분무기이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마련된 이번 행사는 공동연구기관인 ㈜아세아텍과 한국농수산대학교,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지역 농업인 등 30여명이 참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방제기 시연을 관람한 후 개선·보완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로 학습 기반 무인 고성능 방제기’는 과수 재배 중 방제 작업 노동력을 절

감하고 작업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방제기는 8개 재배지 정보를 저장할 수 있으며, 정보 파악을 위한 1회 시험 주행 후 작업자 없이 자동으로 방제함으로써 방제 인력을 줄일 수 있다.

또 작업자의 약액 노출 최소화 및 전도로 인한 인명피해 제로화 등 안전사고 피해를 예방한다.

전동식 주행부와 엔진을 탑재한 분무·송풍부로 구성된 혼합형(하이브리드)이며 1회 작업에 600리터를 살포할 수 있다.

특히 농촌진흥청은 다양한 작업조건에서 분석한 방제기 분무 특성을 바탕으로 공기 흡입형 노즐을 활용한 농약 날림 저감 기술을 개발해 이 방제기에 탑재했다. 기술을 적용한 결과 농약 날림이 약 20%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은 연시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방제기를 개선해 올해 개발을 완료하고, 내년부터 신기술 시범사업으로 농가에 시범 보급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은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농업기술센터 사과 시험재배지에서 ‘경로 학습 기반 무인 고성능 방제기’ 현장 연시회를 28일 가졌다.

농촌진흥청 발농업기계과 김병갑 과장은 “이번에 선보인 경로 학습 기반 무인 고성능 방제기는 과수농가의 노동력 절감과 작업자 안전 확보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 청년 지역우수기업에 “취업 묻다”

전북 직업계고·청년 취업연계 기업탐방 페스타 2회차 토크콘서트가 27일 개최됐다. 이번 2회차 토크콘서트에서는 전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약 30여명 지역청년이 도내 3개 우수기업 인사담당자에게 취업에 대해 묻고 답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이날 일대일 맞춤형으로 취업면접하며 현장에서는 기업 인사담당자를 통해 면접피드백이 이뤄졌다.

‘취업연계 기업탐방 페스타’는 도내 청년 구직자 및 직업계고 학생이 우수 중소기업을 직접 방문, 기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토크콘서트를 개최해 유능한 인재가 지역 기업으로 유입되고 중소기업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이 프로그램은 지난 7월 9일 지역 직업계고 학생이 도내 3개 중소기

업 현장을 찾은 것을 시작으로 11월까지 총 5회에 걸쳐 약 20개사, 200여명 청년 및 학생이 기업탐방과 토크콘서트에 참여하는 내용이다. 이는 구인기업과 구직자간 맞춤형 매칭으로 직무특성 이해도를 높여 실질적인 취업으로 연계, 타지역 유출이 늘어나는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고자 4개 기관이 힘을 모았다.

전북중기청 장상만 청장은 이번 2회차 토크콘서트 현장에 참석해 청년 구직자 질문에 답하고 격려했다.

이와 함께 장 청장은 “청년·학생이 우리 지역의 좋은 중소기업을 알아가는데 도움이 되고, 지역 중소기업도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길 희망한다. 마지막 5회차까지 우리 지역 청년·학생들의 성공적인 취업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농기원, 기후변화 대응 기술 찾아 현장으로

여름철 고온과 잦은 집중호우, 병해충 발생 시기의 변화까지 이상기후가 농업 현장의 일상이 되고 있다. 화학농약과 비료에 기대지 않는 친환경 농업은 이런 변화에 더 민감할 수밖에 없어 바뀐 기후에 어떻게 적응하느냐가 친환경 농가의 당면 과제가 됐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은 27일 전북친환경농업연구회와 함께 ‘2026 전북친환경농업연구회 기후변화 대응 세미나 및 현장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연구회 회원 40여 명이 참석해 이론 교육에 이어 연구·유통 분야의 현장 견학이 이뤄졌다.

오전 농업기술원 연지관에서 열린 세미나에서는 황의동 ㈜오르빌 대표가 ‘기후변화와 친환경 농업정책의



이해’를 주제로 강의했다.

오후에는 국립농업과학원 기후변화연구동을 방문해 농업 분야 기후변화 연구 현황을 살피고,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농업기술원은 바이오차, 풋기름작물 등 저탄소 재배기술 개발과 농업 온실가스 통계 고도화 연구를 추진 중이며, 연구 결과가 현장에서 실용화될 수 있도록 현장실증을 강화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신협 2026 하반기 신입직원 공동채용

신협중앙회 2026 하반기 신입직원 공동채용이 실시된다.

직원 공동채용에는 전북, 서울, 대전, 충남, 광주전남, 충북, 강원, 제주 등 전국 7개 권역 회원조합이 참여한다.

신협중앙회는 각 회원조합 채용 수고를 바탕으로 지역 인재를 선발할 예정이며 모집 소재 지역 인재가 우대되며 연령과 학력, 전공 등에 따른 제한은 없다.

이번 채용은 △서류전형 △필기전형 △회원조합별 면접전형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서는 27일 오전 9시부터 오는 9월 14일 오후 6시까지 신협 공동채용 홈페이지(<https://cu1.saramin.co.kr>)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서류전형 합격자는 10월 12일 발표되며 필기전형은 10월 17일 실시된다.

이후 10월 29일부터 회원조합별 면접전형을 거쳐 11월 1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이다.

신협 공동채용은 채용이 필요한 회원조합 신청을 받아 신협중앙회가 채용공고와 서류·필기전형 등을 지원하는 제도다.

한편 신협중앙회는 공동채용과 대학생 체험행사 등을 통해 회원조합 인력 확보와 미래 인재 발굴을 지원하며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다.

/정소민 기자

군산시, 장애인가족 부모 교육 참여자 모집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센터장 이승준)는 내달 15일 장애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가정에서 활용하는 도전적 행동 중재(ABA) 전략' 부모교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6년 장애인가족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장애 자녀의 도전적 행동으로 어려움을 겪는 부모들이 행동의 원인과 특성을 이해하고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응 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응용행동분석(ABA)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자녀의 행동을 관찰하고 이해하는 방법과 상황에 맞는 중재 전략 등을 다룰 예정이다. 이를 통해 부모의 양육 부담을 덜고 장애 자녀와 가족 간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교육은 내달 15일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교육실(군산시 죽성로 7, 3층)에서 진행된다. 모집 대상은 관내 장애 자녀를 둔 부모 15명 내외이며 교육비는 전액 무료다.

참가 신청은 내달 4일까지 가능하며, 센터 누리집·전화·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군산시장애인가족지원·인권센터 누리집 내 '프로그램 신청' → '역량강화사업'에서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내달 1~21일 치매극복 시민 참여행사 운영

정읍시치매안심센터가 제19회 치매극복의 날을 맞아 내달 1일부터 21일까지 치매상식 문제 풀기와 조기검진, 8만5000보 걷기, 거리 홍보 등 시민 참여행사를 운영한다.

이번 행사는 '치매가 있어도 일상을 누릴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 함께 만들어갑니다'를 표어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높이고 예방과 조기검사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기억을 지키는 한걸음 치매상식 문제 풀기'는 내달 1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된다. '치매안심센터 분소와 함께하는 치매극복 조기검진'은 내달 4일부터 21일까지 주말을 제외하고 신대인보건소 내 치매안심센터 분소에서 진행된다. 인지선별검사 결과에 따라 상담과 2차 검사를 연계하고 검사 완료자에게 기념품을 지급한다.

걷기 응용프로그램인 '워크온'을 활용한 '한마음 치매극복 걷기'는 내달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 운영된다.

내달 16일에는 치매극복선도학교인 신대인중학교에서 등굣길 홍보활동을 펼친다. 치매극복의 날인 내달 21일에는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내장상동 공감플러스센터 광장에서 거리 홍보행사를 연다. 순회경정읍시치매안심센터장은 "이번 행사가 시민들이 치매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예방과 조기검사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소방서, 하반기 수난사고 대비 구조대원 특별교육훈련

익산소방서는 27일 오전 9시부터 13시까지 익산시 옹포면 곰나루길 일원에서 수난사고 대비 구조대원 특별교육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수난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관광 인프라 지역인 옹포대교, 옹포공개나루터, 금강유람선, 옹포공개나루 야영장 일대에서 진행됐다. 특히 연간 약 5만 명이 이용하는 금강유람선과 나룻배 전복 사고 등 현장 특성에 맞춘 실전 대응 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수중 적응훈련, 보트 연계 구조활동, 단계별 인명구조기법 숙달, 수중 탐색법 및 비상탈출법, 수중 수신호 사용법 등이다.

익산소방서는 이번 교육훈련을 통해 수난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하게 현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구조대원의 전문성을 높이고, 다양한 위험 상황에 대비한 맞춤형 대응 체계를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아이 키우기 좋은 익산 최선” 2(題)

‘교육혁신 선도지역’ 도전

익산시가 ‘교육혁신 선도지역’ 지정을 위해 지역 산·학·연·관 핵심 기관의 역량을 하나로 모은다.

익산시는 27일 웨스턴라이프호텔에서 교육부 주관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 선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교육부 공모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교육 여건과 산업 특성을 반영한 교육혁신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광역단위 업무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이번 협약으로 지역 핵심 기관이 참여하는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교육혁신 선도지역’은 인구감소지역의 교육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국가 공모사업으로, 교육부는 올해 전국 40개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최종

선정되면 2027년부터 최대 5년간 국비 20억 원과 시비 6억 원 등 연간 26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시는 공모 선정을 통해 필수과제인 농촌과 구도심 소규모 학교 혁신을 추진하고, 기존 교육발전특구 사업을 통해 마련한 교육 기반과 프로그램도 한층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소규모 학교의 특성과 지역 여건을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에 따른 교육 격차를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연주 익산시 교육협력과장은 “지역의 아이들이 양질의 교육과 돌봄을 누리며 미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혁신 선도지역 공모 선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 활동공간 환경안전 점검

익산시는 키즈카페와 놀이시설, 보육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 47곳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위해성 지도·점검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어린이들이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간의 환경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고, 중금속과 폼알데하이드 등 환경유해인자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추진됐다.

시는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비롯해 시설물의 노후·훼손 상태와 어린이가 직접 접촉하는 시설물의 관리 상태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대상 47곳 가운데 시가 직접 검사를 진행한 32곳은 이달 결과가 나왔다. 시는 검사 결과 환경안전관리기준을 초과한 5곳에 개

선명령을 내렸으며, 해당 시설의 개선 여부를 확인하는 등 사후관리를 이어갈 계획이다.

나머지 15곳은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지원을 받아 검사가 진행됐으며, 향후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기준 초과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과 시설 관리자 안내 등을 통해 환경유해인자 노출을 예방하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해 나갈 방침이다.

한재인 익산시 환경관리과장은 “지속적인 점검과 사후관리를 통해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무더위 속 온열질환 대응 강화

안전인프라 확대 등 다각적 대책 추진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최근 고온다습한 날씨에서 온열질환자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인프라 확충과 트레킹 자체 홍보 등 대응에 나섰다.

시는 앞서 말도, 명도, 방축도의 선착장과 주요 갈림길 등 13곳에 가로등, CCTV, 비상호출벨, 자동심장충격기(AED), 산소마스크, 응급구조키트를 갖춘 긴급안전시스템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여행객이 비상호출 버튼을 누르면 소방청과 전북소방본부, 해양경찰이 순차적으로 연계돼 신속히 출동하는 구조체계도 갖췄다. 말도와 방축도 선착장 인근에는 에어컨을 갖춘 트레킹 안내소

도 각 1곳씩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예방 행동요령을 담은 홍보부채를 제작해 장자도 선착장에서 관광객들에게 직접 나눠주며 홍보와 계도를 병행하고 있다.

시는 이달 말까지 대응을 한층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트레킹 코스 중간지점인 명도샼문화센터를 임시 개방해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

아울러 시 누리집과 SNS를 통해 권고문을 게시해 방문 자제를 당부하고, 방축도 어촌체험휴양마을, 명도샼문화센터, 말도 카페 등 급수 가능 장소도 안내해 관광객들이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항만해양과도 별도 긴급조치에 나선다. 우선 여객선 내 온열질환 주의 방송을 시행해 여행객의 주의를 환기하고,

장자도항과 구령이 전망대, 제3교 시점부 등 5개소에는 고령자 등의 무리한 트레킹 자제를 당부하는 현수막을 설치했다. 섬잇길의 중간지점인 구령이 전망대에는 긴급후송차량과 식수, 의약품을 상시 구비해 환자 발생 시 현장 인력과 차량을 통해 항 내로 후송한 뒤 해경에 연계하는 구조체계를 마련했다. 고령자 등 무리한 트레킹으로 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가까운 명도항으로 하산하도록 권고해 온열질환 사고를 사전에 예방토록 했다.

시 관계자는 “고온다습한 날씨를 특성상 급경사 구간과 계단이 많고 무더위가 지속되는 만큼 폭염특보 발효 시 무리한 트레킹을 자제해 달라”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벼 생육 후기 피해 최소화 ‘총력’

비래해충 관내 상습지 중심 예찰·방제지도

정읍시농업기술센터가 군산과 고창에서 벼멸구와 흑명나방이 확인됨에 따라 농업인상담소 8개 권역을 중심으로 내달 중순까지 집중 예찰과 방제지도에 나선다.

벼농사가 막바지 생육기에 접어든 가운데 최근 군산과 고창 일부 지역에서 벼멸구와 흑명나방의 성충과 어린 벌레인 약충이 발견됐다. 센터는 해충 발생 가능성이 높은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주기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업인상담소장들은 지난 26일 고창군 상평리에서 열린 농촌진흥청·전북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 합동 현장예찰에 참여했다. 현장에서 벼멸구의 발생 양상과 논 안의 발생 밀도 확인 방법, 주요 피해 증상 등을 익히며 점검 능력을 높였다.

벼멸구와 흑명나방은 기류를 타고 국내로 날아드는 대표적인 해충이다. 기상 여건에 따라 발생량이 달라지고 벼 생육 후기에 개체 수가 급격히 늘 수 있어 조기 발견과 적기 방제가 중요하다.

벼멸구는 벼 줄기의 즙을 빨아 먹어 발생이 심하면 벼가 무더기로 말라 죽을 수 있다. 흑명나방은 벼 잎을 말아 그 안쪽을 갉아 먹기 때문에 광합성을

방해하고 벼알이 여무는 데도 영향을 준다.

센터는 8개 권역 농업인상담소를 중심으로 벼 생육 상태와 해충 발생 여부를 세밀하게 살필 예정이다. 이상 증상이 확인되면 현장에서 원인을 신속하게 진단하고 알맞은 등록 약제와 방제 시기를 안내한다.

농업인상담소는 병해충 예찰과 방제지도 등 농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직접 찾아가 해결하는 ‘찾아가는 농업기술센터’ 역할을 하고 있다. 센터는 발생 밀도가 높은 논과 피해 우려지역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방제지도도 실시할 방침이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장애인 이동권 보장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

군산시(시장 김재준)는 27일 군산시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와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민관 합동점검은 장애인들의 이동 편의를 위해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본래 취지를 되살리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의 주·정차 위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을 제고하기 위

해 마련됐다. 시는 군산의료원, 군산근대역사박물관 등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반발지역 및 관내 하계관광지를 중심으로 점검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불법 주·정차 10만 원 △2면 이상의 주차 방해(이중 주차 등) 50만 원 △주차표지 부당 사용 200만 원이다. 특히, 적법한 주차표지를 부착한 차량이라도 장애인이 미탑승한 경우 주차위반으로 간주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시는 단속과 더불어 공동주택에

리프트를 배포하는 등 시민들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한 홍보 활동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법하게 주차표지를 이용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자 지켜야 할 법적 의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과 홍보를 통해 성숙한 주차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주민 사랑방 47곳 손본다

5억8900만원 투입모정 정비

정읍시가 주민들의 쉼터이자 사랑방인 마을 모정 47곳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정비하기 위해 올해 사업비 5억89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정비 대상 가운데 30곳은 공사를 마쳤으며, 나머지 17곳에서는 보수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시는 2027년도 모정 정비사업에 대한 마을별 신청도 오는 9월 11일까지 받는다. 사업을 희망하는 마을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지원 대상은 보조금 심의를 거쳐 정한 뒤 내년도 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오래돼 보수가 필요하거나 재해 등으로 파손된 모정이다. 보수개축, 이용 편의 개선, 철거 등에 드는 공사비를 지원하며, 마을 소유의 터를 확보한 경우에는 이전 공사로 지원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마을 모정이 주민들의 휴식과 소통 공간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부분을 세심하게 살피겠다”며 “예산 낭비는 줄이고 주민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사회적경제기업 참여 ‘추석 선물전’

지역경제 선순환 촉진

익산시는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5시까지 시청 1층에서 ‘2026년 추석맞이 명절 선물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제품을 알리고 판로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명절 소비를 지역기업의 매출로 연결해 지역경제의 선순환을 촉진한다는 취지도 담았다.

선물전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익산형 예비사회적기업, 공정무역 관련 기업 등 사회적경제기업 26곳이 참여해 먹거리부터 생활·공예품까지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특히 단순한 제품 전시·판매를 넘어 참여기업과 방문객이 직접 만나 제품에 대해 상담하고 현장에서 주문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선물전을 찾는 방문

객을 위한 경품 행사도 마련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동그라미플러스 △하나스토리 △사각사각 △세미푸드 △기쁨누리 △황수연전통식품 △청소년자립학교 △원서점 △로잇스페이스 △더원푸드 △온성이다. 마을기업에서는 △품격도시협동조합 △실오라기 △곰개나루 △공감 △참살이협동조합 △곰마루 △함해국이 함께한다.

협동조합과 익산형 예비사회적기업, 공정무역 분야에서는 △숨숨협동조합 △도다도담 △청솔밭농장 △로컬아르티자 △프룬솔마을관리 △수룩 △서동꽃마루 △작은꽃이 참여한다.

시는 이번 행사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제품과 서비스를 널리 알리고, 지역사회와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가치소비 확산과 지역경제 선순환 기반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마음동행 여권민원 창구’ 운영

장애인·어르신 등 신속처리

군산시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시민들의 여권 민원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보다 세심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음동행 여권민원 창구’를 운영한다.

‘마음동행 여권민원 창구’는 장애인, 70세 이상 어르신, 임산부, 영유아 동반 민원인 등 배려가 필요한 시민을 대상으로 우선 안내하고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는 서비스다.

이를 통해 민원 처리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대기시간을 줄이고, 민원실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시민들이 보다 편안하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여권 업무를 처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권 민원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군산시청 열린민원과 여권 창구에서 처리하며, 직장인 등 평일 근무시간에 방문하기 어려운



<사진=군산시>

시민들을 위해 매주 목요일 오후 9시까지 여권 야간창구도 운영하고 있다. 홍양숙 열린민원과장은 “앞으로도 시민의 입장에서 불편사항을 세심하게 살피고, 시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원서비스를 제공할겠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민선 9기 핵심 시정 기조 본격화

민관협의체 역량 모아

익산시가 관 주도의 일방적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과 전문가, 행정이 한 팀을 이뤄 도시의 미래를 설계하는 민선 9기 핵심 시정 기조를 본격화한다.

익산시는 27일 오후 4시 30분 시청 다목적홀에서 8개 분야 민관협력 협의체 위원과 시의원, 관계 공무원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협력 협의체 익산대전환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시민이 기획하고 행정이 뒷받침한다’는 민선 9기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각 분야 민관협의체의 추진 방향을 공유하고 지역 현안의 실질적인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열렸다.

행사는 협의체 추진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시장과 시의원 인사발, 8개 분야 협의체 위원장 소감 발표, 익산대전

환 퍼즐 완성 퍼포먼스,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8개 협의체를 상징하는 퍼즐을 차례로 맞춘 뒤, 중앙에 ‘익산대전환, 시민과 함께 여는 미래’ 문구가 담긴 퍼즐 조각을 부착하는 퍼포먼스를 통해 각 분야의 지혜를 모아 도시 혁신을 이루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최정호 익산시장은 “익산의 실질적인 변화는 시민이 현장에서 느끼는 생생한 목소리에 전문가의 경험과 행정의 실행력이 더해질 때 비로소 완성된다”고 말했다.

이어 “8개 협의체에서 모아진 시민의 지혜가 실제 정책과 사업으로 결실을 맺고, 시민이 삶 속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출산지표 4년 연속 ‘상승세’

합계출산율 1.20명 평균 1.5배

전국·전북 평균 크게 웃돌아

첫째아출생 전년比 25% 증가

완주군 합계출산율이 1.20명을 기록하며 4년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전국과 전북 평균을 크게 웃도는 데다 출생아 수도 전년보다 15% 이상 증가해 완주군의 출산지표가 뚜렷한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6일 발표한 국가데이터처 출생통계에 따르면 완주군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0.87명, 2023년 0.89명, 2024년 1.09명, 2025년 1.20명으로 4년 연속 상

승했다.

2025년 기준 전국 합계출산율 0.80명보다 0.40명, 전북특별자치도 평균 0.85명보다 0.35명 높은 수준이다.

출생아 수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졌다. 완주군 2025년 출생아 수는 627명으로 전년 544명보다 83명, 15.3%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 출생아 증가율은 6.7%, 전북은 3.9%로, 완주군의 증가율은 전국의 두 배 이상, 전북의 약 네 배 수준에 달했다.

출생아 증가의 가장 큰 특징은 ‘첫째아 증가’로 2025년 완주군의 첫째아 출생은 400명으로 전년 320명보다 80명, 25.0% 증가했다. 이는 전체 출생아 증

가분 83명의 96.4%에 해당한다.

또한 완주군의 출산 증가에는 주 출산 연령층의 증가가 주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15~49세 여성 인구는 전년 대비 0.3% 증가한 반면에 30~34세 여성은 7.6% 증가해 이 같은 인구구조 변화가 출생아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합계출산율 1.20명이라는 수치뿐만 아니라 출생아 수 자체가 15% 이상 증가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며 “삼봉지구와 운곡지구 등 주거환경 조성과 다양한 지원정책이 긍정적인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201억 규모 사업 재검토…재정 효율화

신규·일몰시책 발굴 보고회

53억 규모 신규시책 69건 발굴

남원시는 지난 26일 양충모 남원시장 주재로 실·국·소장 및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7년 신규·일몰시책 발굴 보고회를 개최하고, 세출 구조조정을 통한 재정 효율화와 시민 체감형 신규시책 발굴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보고회는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기존 사업의 필요성과 효과를 점검하여 불필요하거나 성과가 미흡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신규사업과 지역의 미래성장을 위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각 부서에서 제안한 53억원 규모의 신규시책 69건과 201억원 규모의 일몰시책 22건을 대상으로 사업의 필요성, 실효성, 시민 체감도 및 재정투입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



<사진=남원시>

으로 검토했다.

주요 신규시책으로는 귀농귀촌인 새답하우스 조성, 읍·면·동 주민자치회 현장 컨설팅, 남원시 농특산물 온라인 플랫폼 구축·운영 사업 등이 보고됐다.

이와 함께 일몰시책으로는 곤충산업 거점단지 조성, 다목적드론활용센터 건립사업, 시민참여형 드론스포츠파크 확충 사업 등을 검토했으며, 성과

가 미흡하거나 정책환경 변화로 지속 필요성이 낮아진 사업 등을 정비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일 계획이다.

양충모 남원시장은 “기존 사업은 성과와 필요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불필요한 사업은 과감히 정비하고, 신규사업은 시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꼼꼼히 검토해 달라”고 주문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 운주·화산농협 신설합병 논란 ‘일파만파’

운주농협 “14년 합병유예 끝나…

조합원 재산 지킬 현실적 선택”

완주군 운주농협이 화산농협과의 신설합병 추진과 관련해 ‘조합원 재산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특히 “이번 합병 논의는 특정 개인이나 조합장의 이해관계를 위한 것이 아니라, 54년 역사의 운주농협과 조합원 재산을 지키고 더 큰 경영위기를 막기 위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밝혔다.

운주농협은 27일 입장문을 통해 최근 신설합병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각종 의혹과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설명하고, “최종적인 합병 여부는 조합원들의 충분한 판단과 의사에 따라 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주농협은 지난 14년간 합병유예를 받아오면서 독자경영을 유지하고 스스로 생존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조합원 감소와 농촌인구 감소, 사업 구

모의 한계, 금융·경제사업 환경의 변화 등으로 독자경영을 지속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커졌다.

여기에 농협중앙회의 경영진단과 합병 권고라는 현실적인 상황까지 맞물리면서 더 이상 합병 문제를 미루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는 설명이다.

특히 냉동딸기 문제와 관련해서는 2024년 매입·보관 과정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한 이후 감사와 조사 등이 진행된 사안으로, 신설합병 추진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조합장 징계와 관련해서는 조합처에서 1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권고했으나, 이후 이사회에서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고도 했다.

이결과 조합장은 이사회 징계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해 해당 처분의 법적 효력을 다루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냉동딸기 문제와 조합장 징계 문제는 현재 각각 정해진 감사·조사 및 법

적 절차에 따라 사실관계와 책임 여부가 확인·판단될 사안이며, 신설합병과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화산농협 조합장의 장기집권을 위한 정치적 야합’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내놨다.

신설합병은 어느 한쪽 조합장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양 조합의 관련 절차와 의사결정을 거쳐야 하는 사안이라는 것이다.

합병 이후 조합장 선출과 임원 구성 등은 관련 규정과 절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으로, 특정 조합장이 사전에 자신의 장기집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현 조합장은 “조합원 여러분께 먼저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운주농협이 현재와 같은 어려운 상황에 이르게 된 데에는 조합장으로서 저의 책임도 분명히 있다. 책임을 회피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발효테마파크 ‘촌시장’ 플리마켓 개장

지역 농산물·공예품 한자리

12월까지 매월 정기 운영

순창발효관광재단은 29일 순창 발효테마파크 고고관 1층에서 지역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순창 촌시장’을 개회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지역 주민과 생산자, 창작자 등이 직접 참여해 지역의 생산품과 생활문화를 소개하고, 관광객에게는 순창의 사람과 지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순창 촌시장’은 (사)10년후순창과 협력해 8월 첫 행사를 시작으로 12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정기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행사에서는 △촌장터 지역 농산물과 농가 직가공품·공예품 판매 △촌밥상 지역 식재료와 발효식품

을 활용한 먹거리 △촌공방 공예·생활문화 체험 △촌나눔 중고물품 나눔장터 △촌마당 지역 창작자와 단체의 전시·공연·홍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특히 첫 촌시장은 순창발효테마파크의 8월 기획행사인 ‘8월의 크리스마스’와 연계해 운영해 테마파크를 찾는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지역 먹거리와 체험, 문화공연 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선운숙 순창발효관광재단 대표는 “순창 촌시장은 지역 주민과 생산자, 창작자가 직접 참여하고 관광객과 소통하는 열린 장터”라며 “앞으로도 지역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다양한 연계 프로그램을 발굴해 지역경제와 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청소년 생명안전망 공동대응체계 가동

고위험 청소년 조기발굴 등 논의

남원시는 27일 제5차 자살예방회의와 함께 ‘청소년 생명지킴이 지역 안전망 협의회’를 구성하고, 청소년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공동 대응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번 협의회는 지난 6월 제25회 국무회의에서 발표된 「청소년 자살 예방 범정부 추진대책」에 따른 후속 조치로, 학교와 지역사회의 위기 지원체계를 연계해 촘촘한 생명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의회는 남원시 자살예방관리 부서장을 협의회장으로, 남원교육지원청을 간사로 하며 경찰·소방,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청소년 위기 대응과 관련된 기관이 함께 참여한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 농약안전보관함 관리 ‘촘촘히’

마을 이장간담회…협력체계 강화

완주군정신건강복지센터(센터장 강남민, 마음사랑병원 진료과장)가 농약안전보관함 보급사업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현장 의견 수렴을 위해 마을 이장간담회를 열었다.

최근 열린 간담회는 참여율을 높이고자 1차와 2차로 나누어 진행했다. 완주군 내 농약안전보관함 보급 마을 이장들이 참석해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모니터링 방식 및 마을 생명안전망 구축 방안을 다각도로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2026년부터 보급 5년 이상 경과 마을 이장의 연 1회 자체 모니터링 결과를 공유하고, 모니터링 현장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군, 성자·생태 잇는 체류관광 모색

가톨릭 세계청년대회 선제 대응

완주문화관광재단(이사장 유희태)은 DMO 육성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난 25일 완주군 주요 종교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을 연계한 2026 완주 DMO 종교·생태 투어 현장답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현장답사는 향후 예정된 교황 방한과 2027 가톨릭 세계청년대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완주가 보유한 종교문화유산과 생태자원을 활용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가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완주 DMO 협의체 참여기관 및 관계자 등 15여 명이 참여했으며, 전북투어패스 지원버스를 활용해 주요 거점을 둘러봤다.

답사단은 초남이성지를 시작으로 고산미소시장, 천호성지, 되재성당(보



안성당), 세심정 등 주요 종교·생태 거점을 순회하며 자원 간 연계 가능성을 점검했다.

재단은 이번 현장답사에서 수렴한 의견을 바탕으로 주요 성지와 생태·관광자원을 한눈에 살펴볼 수 있는 스토리 지도 제작과 관광 수용태세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완주를 중심으로 인근 지역의 종교문화유산까지 연결하는 체류형 광역 성지순례 관광코스를 단계적으로 개발해 나갈 방침이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기초생활보장 담당자 업무 역량 제고

남원시는 지난 26일 시청 및 읍·면·동 기초생활보장 업무 담당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기초생활보장 업무담당자 직무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기초생활보장제도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규 임용 및 순환보직 직원의 조속한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기초생활보장 사업 전반에 관한 실무 교육과 함께 2026년 주요 제도 개정사항 안내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남원시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담당자들의 업무 역량을 한층 강화함으로써, 복지 서비스 신청 및 민원 처리를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는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나아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더불어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 행정 전반의 신뢰성을 더욱 제고할 방침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세외수입 체납관리 강화 담당 공무원 실무교육

순창군이 하반기 세외수입 체납처분 강화를 앞두고 담당공무원들의 실무역량을 높이기 위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군은 지난 26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세외수입 체납업무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복잡한 체납·징수 절차에 대한 실무 이해도를 높이고, 현장에서 보다 신속하고 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에는 세외수입운영지원단 전문강사가 나서 △부과대상 등록 및 관리 △체납 현황 조회 △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등록 △전산시스템 활용법 등 체납관리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실무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이 담당자들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인 체납관리를 추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세외수입의 안정적인 확보와 체납액 감소를 위해 체계적인 징수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순창군은 도내 최초로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운영하며 소액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상담과 현장방문 등 맞춤형 징수활동을 추진해 왔다. 하반기에는 이번 직무교육을 바탕으로 고액·삼습 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강화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더욱 힘을 쏟을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청소년문화의집
신재생에너지 직업 체험 운영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이 청소년들이 다양한 직업세계를 경험하며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도록 체험형 진로탐색 프로그램 ‘진로공작소’를 운영하고 있다.

진로공작소는 지난 22일부터 시작해 9월 5일까지 매주 토요일 총 3회에 걸쳐 중학교 1~3학년 청소년 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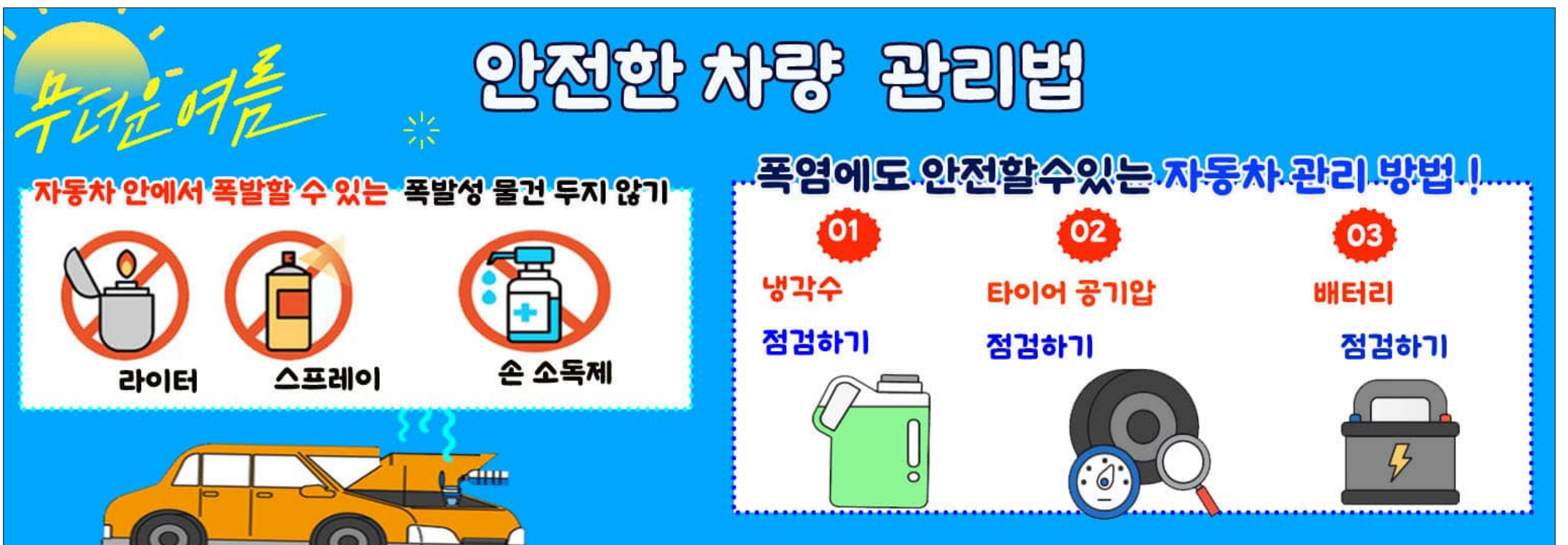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직접 만들고 탐구하는 체험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와 공예 분야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구성했다.

첫 번째 활동에서는 환경에너지 컨설턴트의 역할과 친환경 에너지의 종류를 알아보고 수동식 발전기를 직접 제작하며 전기가 만들어지는 원리를 체험했다. 청소년들은 발전기를 손으로 작동하면서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신재생에너지 분야와 관련된 다양한 직업을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목공 체험에서는 목공예가와 가구제작자의 주요 업무와 필요한 역량을 살펴본 뒤 목재를 직접 다듬고 조립하며 자신만의 작품을 완성한다.

가죽공예 체험에서는 가죽공예가와 공예 디자이너의 직무를 알아보고 재료 선택과 디자인부터 제작까지 전 과정을 경험한다.

최정선 완주군청소년문화의집 관장은 “진로공작소가 청소년들이 자신의 가능성을 발견하고 미래를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一事一言〉



동물병원 진료비 ‘시농’ 넘어 표준 수가제로 전환해야

최준호

전북타임스 대표

진료비 최대 12.5배 편차...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해야

대한민국이 반려동물 가구 1,500만 시대를 맞이했지만, 전북의 15만 반려가구가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은 여전히 냉혹하고 팍팍하다. 가족과 다름없는 반려동물이 아플 때 찾아가는 동물병원의 문턱은 여전히 높고, 갑갑이 진료비와 천차만별인 가격 구조는 도민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

어제 발표된 전북소비자정보센터의 실태조사 결과는 그동안 도민들이 품어온 불신과 의구심이 결코 기우가 아니었음을 명백히 보여준다. 공공 시스템에 게시된 진료비와 실제 현장에서 청구되는 가격의 심각한 불일치, 그리고 병원별로 수직 상승하는 고무줄 가격 편차는 도민의 알 권리와 경제적 주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 등 공공 게시 시스템에 등록된 가격보다 실제 현장에서 지불하는 평균 진료비가 훨씬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혈액화학검사비의 실제 현장 평균 가격은 8만 9,792원으로 공시가격(7만 4,244원)보다 20.9%나 높았고, 고양이 입원비 역시 현장 평균(7만 8,000원)이 공시가격(6만 2,930원)보다 23.9%나 웃돌았다.

공공시스템이 제공하는 정보가 현장

현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는 ‘유령 정보’로 전락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큰 문제는 병원 간 극심한 가격 차이다. 같은 혈액화학검사임에도 병원에 따라 최대 12.5배의 금액 차이가 발생했으며, 고양이 입원비는 최저 2만 원에서 최고 20만 원까지 무려 10배의 편차를 보였다. 부르는 게 값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러한 가격 왜곡 현상은 단순히 개별 병원의 영업 자율성이라는 핑계로 방치될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정부가 소비자의 정보 접근성과 선택권을 보장하겠다고며 ‘진료비 게시 의무화’를 도입했지만, 행정 당국의 사후 관리와 모니터링이 부실한 틈을 타 제도 자체가 요식 행위에 그치고 있는 것이다. 도민들은 공시가를 믿고 병원을 찾았다가 현장에서 20% 이상 부풀려진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들고도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할 수밖에 없다.

지자체별로 지원하는 반려동물 의료복지 사업 또한 시·군에 따라 혜택과 수준이 제각각이어서, 전북 내에서도 내가 사는 지역이 어디냐에 따라 차별을 받는 기형적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다.

이제는 시농뿐인 가격 표시제 뒤에 숨어 눈속임을 이어가는 부정행태를 끊어내야 한다. 행정 당국은 공시가격과 현장 가격의 간극을 줄이고 도민들이 한눈에 객관적인 진료비를 비교·검증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모니터링 체계를 즉각

구축해야 한다.

거짓 공시나 과도한 기만적 가격 책정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 지도와 제재가 따라야 마땅하다. 또한 차기 지방정부와 자치단체장, 그리고 지역 정치권 역시 선거철에만 생색을 내는 구색 맞추기식 반려동물 공약을 당장 던져버려야 한다. 시·군별 의료 지원 격차를 해소하고, 과도한 진료비 폭리를 막을 수 있는 ‘동물병원 표준 수가제’와 ‘권장 진료비 가이드라인’ 도입 등 근본적이고 현실적인 대안 마련에 즉각 나서야 한다.

반려동물은 단순한 소유물이 아닌 한 가족의 생명이며, 반려가구의 복지는 곧 도민 삶의 질과 직결된다. 아픈 가족을 담보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고 경제적 고통을 강요하는 구조를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직무유기다.

도민들의 현명한 소비 주권과 알 권리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전북도와 각 지자체는 동물병원 진료비 투명화와 공정한 의료 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야 한다. 도민들의 참았던 분노와 서글픈 눈물에 정치가 책임 있는 대안으로 응답해야 할 때다.

독자투고

가정폭력 현장조사 방해, 이제는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설마 집안일인데 경찰이 꼭 들어와야 하나.”

가정폭력 신고 현장에서 아직도 종종 들을 수 있는 말이다.

하지만 가정폭력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라 자칫 소중한 생명을 앗아갈 수 있는 중대한 범죄이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의 신속한 현장조사는 피해자를 보호하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다.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경찰의 출입을 막거나 현장조사와 질문을 거부하는 등 정당한 공무수행을 방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동은 단순히 경찰 업무를 지연시키는 데 그치지 않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를 늦춰 더 큰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심각한 문제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 7월 8일부터 개정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고 있다. 그동안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됐지만, 앞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 대상으로 강화됐다. 이는 경찰의 현장 대응력을 높이고 무엇보다 피해자를 더욱 신속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보완이다.

가정폭력 사건은 초기에 얼마나 빠르고

적절하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피해자의 안전은 물론 재범 예방에도 큰 차이가 생긴다. 경찰의 현장출입과 조사는 누군가를 처벌하기 위한 절차가 아니라, 위협에 처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우리 주변에서 가정폭력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작은 관심과 신고, 그리고 경찰의 정당한 현장조사에 대한 협조가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가정폭력은 반드시 막아야 할 범죄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더욱 확산되고, 피해자들이 안심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기를 기대한다.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순경 유서준

사설

도의원 사업 1600억, 천호성 교육감 끝까지 밝혀라

천호성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이 이른바 ‘도의원 사업’에 칼을 빼 들었다. 인수위원회 분석 결과 지난 4년간 도의원들과 관련된 교육청 사업 규모가 약 1,600억 원에 달하고, 130개 사업을 재검토해 10개를 문제 사업으로 추린 뒤 전문가 등의 검증 거쳐 7개 사업에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는 것이다. 천 교육감은 문제가 확인된 사업은 예산에서 배제하거나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우리는 천 교육감의 문제 제기와 개혁 방향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교육예산은 학생과 학교를 위해 사용돼야 한다. 도의원이 지역 민원을 전달하고 필요한 교육사업을 제안하는 것은 당연한 의정활동이다.

그러나 의원이 예산 편성 과정에 직접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사업을 끼워 넣거나 교육청 공무원들이 이른바 ‘의원 사업’을 처리하느라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받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교육청은 사업과 정책을 수립하고 예산을 편성하며 의회는 이를 감시하고 심의·의결하는 것이 기본적인 역할이다. 이 경계가 무너지면 교육예산이 정치인의 지역구 관리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천 교육감이 ‘1,600억 원’이라는 충격적인 규모를 공개한 이상 이제는 그 실체를 밝혀야 한다. 도의원 관련 사업이라고 모두 부당한 사업으로 몰아가서도 안 된다. 주민과 학교가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의원이 전달했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무엇을 기준으로 130개 사업을 도의원 관련 사업으로 분류했는지, 문제가 있다는 10개 사업과 최종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7개 사업은 무엇인지 명확히 설명해야 한다. 사업 규모와 추진 경위, 문제점도 공개할 수 있는 범위에서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조치는 자칫 전임 교육청을 지우거나 도의회를 압박하기 위한 정치적 수단이라는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 개혁은 구호가 아니라 객관적인 근거와 공정한 잣대로 증명해야 한다.

천 교육감 자신에게도 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 측근·과건교사 인사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서도 ‘검증된 인제’라는 설명만으로 끝낼 일이 아니다. 도의원들에게 관행과 특혜의 고리를 끊자고 요구한다면 자신의 인사와 행정에도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야 개혁의 명분이 선다.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천 교육감의 의지는 평가할 만하다. 그렇다면 물려서지 말아야 한다. 1,600억 원이라는 숫자를 던진 데서 그칠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다면 끝까지 밝히고 바로잡아야 한다. 도의회 역시 감정적인 예산 보복이나 힘겨루기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 이번 기회에 교육청과 도의회의 잘못된 예산 관행이 있었다면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 그것이 전북교육을 바로 세우고 도민의 세금을 지키는 길이다.

▲오늘의시

아무도 슬프지 않도록 / 정 호 승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아무도 슬프지 않도록
그대 잠들지 말아라
마음이 착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지닌 것보다 행복하고
행복은 언제나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곳에 있나니

차마 이 빈 손으로
그리운 이어
품의 꽃으로 태어나
피의 꽃잎으로 잠드는 이어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그대 잠들지 말아라
아무도 슬프지 않도록

시인 약력 : 1950년 경남 하동 출생. 경희대 국어국문학과와 동 대학원을 졸업했다. 1972년 한국일보 신춘문예에 동시 ‘석굴암을 오르는 영하’로, 1973년 대한일보 신춘문예에 시 ‘청성대’로, 1982년 조선일보 신춘문예에 단편소설 ‘위령제’로 각각 당선됐다. 1979년 첫 시집 ‘슬픔이 기쁨에게’를 출간했다. 제3회 소설시문학상, 제10회 동서문학상, 제12회 정치용문학상 등을 수상했다.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11년 10월01일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 -00022(별관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사 010-9845-4113	군산지국 010-8641-7942	무주지국 010-8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앙지사 010-98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8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사 010-8640-6855	익산지국 010-958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사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장수지국 010-8626-6049	
송전지사 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전북의 오늘을 담고, 내일을 엽니다.

전북타임스신문

JEONBUK TIMES

구독신청 063-282-9601

이메일www.jeonbuktimes.co.kr

도민과 함께하는 신뢰받는 정론지



지리산 자락의 목공 공방에는 톱밥 냄새와 옷 냄새가 섞여 있었다.

여덟 살 김서연(가명) 양이 쌀알만 한 자개 조각을 핀셋으로 집어 검은 옷칠 목걸이 위에 올리자, 테이블 아래 엎드려 있던 크림색 반려견 콩이가 고개를 들었다.

“콩아, 이따 네 이름표도 만들어 줄게.”

아이의 말에 공방 안 어른들이 웃었다.

지난 1일 전북 남원시 이백면 옷칠목공체험관광협동조합 공방. 반려견 동반 가족들이 남원에서 보낸 1박 2일 동안 만든 것은 자개를 붙인 옷칠 목걸이 두 점과 강아지 얼굴이 그려진 컵받침, 그리고 우드버닝으로 개 이름을 새긴 나무 이름표였다.

〈편집자 주〉

◆ 왜 지리산인가 — 어머니의 산이 개를 품는 방식
남원 사람들은 지리산을 ‘어머니의 산’이라 부른다. 뱀사골·달궁·구룡의 1급수 계곡과 해발 600m 고랭지, 정령치 운해가 차로 30분 반경 안에 모여 있고, 그 위에 춘향전과 동편제 판소리의 이야기가 겹겹으로 쌓였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이 지리산을 고른 이유는 풍경 때문만은 아니다. 이곳이 반려견에게도 여행지가 되어 주는 땅이라서다.

숙소 두 곳이 그 답을 보여준다. 산내면 중황마을 제일 끝집, 흙과 나무만으로 손수 지은 ‘지리산순이네홈집’에서는 반려견이 이웃 눈치를 볼 일 없이 산책로와 계곡을 오간다. 이 집에는 와이파이드 TV도 없는 대신 안내견 노릇을 하는 반려견 ‘초코’가 있다.

손님의 강아지를 마중 나와 산책길을 앞장서는 초코는, 애견 동반 숙소의 차별점이 시설이 아니라 관계에서 나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드문 사례다.

뱀사골 아귀의 ‘별해는밤펜션’은 1급수 달궁계곡까지 걸어서 3분이다. 개를 태우고 계곡 주차장을 해맬 필요 없이, 목줄 하나 들고 걸어 내려가면 물가다.

◆ 마른하늘에 물벼락 — 웃음을 설계하다

한여름 오후의 공방 마당에서는 이 여행의 가장 소란스러운 순간이 벌어진다. 이름부터 장난기 가득한 쿨링 이벤트 ‘마른하늘에 물벼락, 적셔버려라’.

우비를 입고 의자에 앉으면 머리 위에 시소식 물통이 걸리고, 가족이 던진 공이 표적에 명중하는 순간 물벼락이 쏟아진다. 시원함을 오롯이 즐기고 싶다면 우비를 입지 않아도

반려견과 함께 잠드는 지리산의 밤



된다. 윤영진은 이 장치를 “기계가 아니라 기다림, 긴장, 폭발, 웃음이라는 감정의 순간을 주는 놀이기구”라고 설명했다.

평소 물벼락을 ‘맛을 일 없던’ 엄마가 아이가 던진 공에 흠뻑 젖는 순간, 관계가 뒤집히는 카타르시스에 마당이 웃음으로 가득 찬다. 예민한 반려견들은 그동안 그늘 쉼터에서 지도사가 따로 돌본다.

해가 기울면 운봉읍 해발 600m의 치유농장 ‘지리산들꽃 다물농장’ 느티나무 숲으로 자리를 옮긴다. 뇌혈관질환 수술 후 회복을 위해 정령치에서 내려다본 운봉 들녘에 반해 귀촌했다는 대표가 일군 땅이다.

지리산 흑돼지 삼겹살이 숯불에 오르고, 농장에서 캔 고사리와 삼나물이 함께 상에 오른다. 디저트로 고랭지 감자와 옥수수도 함께 제공된다. 개들은 테이블 곁에 앉는다.

◆ “배변 상담 받으러 여행 왔어요”

프로그램에는 국가공인 반려견지도사 등 자격 7종을 보유한 류재은 행동지도사의 산책 교육과 1대1 행동 상담이 들어 있다.

스스로를 “지도사이기 전에 7마리의 반려견 보호자”라고 소개하는 그는 5kg 소형견부터 30kg 대형견까지, 4개월령부터 12세 노령견까지 키우는 다견 가정의 보호자다.

“다른 개를 무서워하는 아이도 단계를 나눠 접근시키면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낯선 개들 사이의 거리 조절이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 일이지요.”

전주에서 온 박모(41) 씨 가족은 이 상담을 여행의 이유로 꼽았다. “콩이가 산책 때마다 짖어서 늘 미안하고 궁금했는데, 여행 와서 전문가에게 물어볼 수 있을 줄은 몰랐어요. 놀러 와서 숙제까지 해결한 기분이에요.”

딸 서연 양의 손에는 콩이의 이름을 우드버닝으로 새긴 나무 이름표가 들려 있었다. “콩이가 자기 이름 새기는 걸 옆에서 봤어요. 세상에 콩이 가는 이것밖에 없어요.”

광주에서 온 이모(38) 씨는 흙집의 밤을 이야기했다. “TV가 없으니 개랑 마당에 앉아 별만 봤어요. 도시에서는 개를 데리고 여덟 가도 늘 눈치를 봤는데, 여기서는 저 끝까지 온 마을이 조용히 내버려 두더라고요.”

◆ 여행이 끝나도 거실에 남는 것

이 여행의 기념품은 사진만이 아니다. 옷칠 원목에 자개를 붙인 목걸이 두 점, 강아지 얼굴 컵받침, 반려견의 이름표를 만들어 돌아간다. 천년을 가는 전통 공예 기법이 반려견이라는 가장 현대적인 가족 형태와 한 공방 안에서 만난 셈이다.

프로그램은 선착순 8팀, 팀당 2인 이상으로 운영되며 다음 회차 일정과 신청은 남원누비고 홈페이지(<http://남원누비고와.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돌아가는 차 뒷좌석에는 옷칠자개목걸이 두 점과 컵받침, 그리고 제 이름표를 목에 건 채 잠든 콩이가 나란히 있었다.

사람들은 지리산을 어머니의 산이라 부른다. 올여름 그 품은, 네 발 달린 식구의 단잠까지 안아 주었다.

/남원=정하복 기자

옷칠 자개에 새긴 우리 강아지 이름